

이인호 목사, 번식교회 담임목회자로 결정돼 오늘 저녁 7시 소예배실, 두 번째 기도회 시간 있어



지난주일(25일) 저녁 7시에 소예배실에서 교회번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 참석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교회번식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기도회로 오해해서인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다.

문동학목사는 교회번식의 비전을 발견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봉독하고 첫 기도회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며, 건물이나 정치적 그룹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명하시는데, “생육하라”는 것은 생명 개체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번성하라”는 것은 개체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존재인 교회의 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번식만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시무했던 망우교회

때 번식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 처음에 어려웠던 점들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었다. 문동학목사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분가하는 심정으로 교회 번식을 이루어보라고 강조했다. 교회번식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도전인데,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번식하게 되는 교회에는 이인호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이 기도회는 10월 한 달간 계속될 예정이며, 번식교회가 창립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11월경에 창립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교회번식은 하반기 교회 사역중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다. 번식되는 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든 하지 않든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이번 교회번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일 저녁 7시에 있는 번식교회회를 위한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오늘 오후 4시 중예배실, “부부세미나” 열려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개설된 아버지학교가 폭포수 같이 내리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난주일(25일) 드디어 막을 내렸다. 지난주일은 수료식을 하는 날로서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서 같이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처음 시작할 때엔 서먹서먹하게 만났지만 5주 동안 서로의 나눔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을 느끼고 서로 뜨겁게 포옹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4면에서 계속)



PTP, 학부모 기도회

지난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는 그동안 PTP기도회를 기다렸던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헌신이 보였다.

매달 네 번째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흥민기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줄이 길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기다린 후 한 가정씩 기도를 받았다. 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했고 말씀 후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다. 특별히 가을학기부터는 자녀들 연령별로 소그룹을 도입해 자녀를 키우며 어려운 일이나 기쁜일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한 학부모는 여름 내내 기도회를 기다렸다면 많은 은혜가 있음을 알리고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기도 했다. PTP기도회의 슬로건처럼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응답 받을것을 믿는다.

4부 전도 예배 “오늘” 팀, 소그룹 워크샵 가져



4부 전도예배 “오늘” 팀 소그룹 워크샵이 지난 9월 22일(목)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있었다.

전도예배를 담당하는 세 명의 목사(문동학, 이창현, 이호)와 팀장인 이영미 집사 그리고 소그룹 팀원 11명이 참석하였다. 특별히 소그룹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 사모들도 많이 참석했다. 전도예배 “오늘”에 참여하는 seeker(교회와 예배에

낮선 사람) 중에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이었다.

먼저 문동학 목사가 전도예배와 Seeker small group(교회와 예배에 낮선 사람들의 소모임)양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였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기존의 전도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4면에서 계속)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선지서 연구



홍민기목사가 인도하는 양육클래스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소선지서 연구)은 매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된다.

이 수업은 요나, 하박국, 말라기를 통하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한 시간이다.

세 번째 수업인 지난 27일에는 요나서 3장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

님, 다시 불러주시고 기회주시며,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

신앙이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체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다시 주신 기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순종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더하거나 깎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65명의 성도가 참여하는 이 수업은 성도들의 ‘아멘’ 소리와 웃음과 진지함이 가득한 현장이었다. 공부를 위해 홍민기 목사는 본문을 미리 읽고 쓰며 기도로 같이 준비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수업은 다음 주를 건너 뛴 10월11일부터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글함글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글함글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이나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바랍니다.

통합아동부 레인보우

말씀과 찬양, 그리고 게임이 있는 즐거운 주일학교, 통합아동부 레인보우는 2004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기도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딱딱한 예배가 아닌,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지금의 예배 형태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의 숨은 기도가 많이 있었다. 또한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영적 일기를 쓰도록 격려하고 있고, 예배에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달란트를 시상한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달란트시장을 통해 천국잔

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3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왔다갔다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정착하여 자리를 잡게 되어 어린이들 관리에 더욱 수월해졌다. 매주 모여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 현재는 전도사님을 제외하고 여덟 명의 헌신된 교사들이 레인보우를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로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1층 유년부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열린 예배에 초대한다. (다음 카페: www.cafe.daum.net/rainbow4kids)

15사단 신병교육대 방문하고 돌아와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쁨소리 찬양단 50여명은 9월 24일 아침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화천을 향해 달려갔다. 오 고가는 길이 주말이 되어서 그런지 차들이 많아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지만 희망과 사랑의 장소인 화천 승리 교회에 도착하였다. 악기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자원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시간에는 김현령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

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인생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들은 병사들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병사들은 기쁨소리 찬양단과 함께 힘차게 찬양을 부르며 즐거워했다. 주님의 사랑 속에 120명의 병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했다. 쉽게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군선교 사역에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기대한다.

청소년찬양축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기쁨



청소년 찬양축제가 지난 24일(토요일), 오후 6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7,8월을 쉬고 다시 시작된 찬양축제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와 지방의 청소년들 등 약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올렸다. 홍민기목사는 사도행전 1:6~11절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다니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 주위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도 달라지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실 체험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릴 통해

그분을 드러내길 원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주위를, 학교를 변화시켜주시길 간구하자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기쁨은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였다. 말씀이 끝난 후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각자 무릎을 꿇거나 서서, 혹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청소년찬양축제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오늘 기도



내 판단, 의지, 주리력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교회 재정보고서

1. 자금계산서 (총괄)

2005. 1. 1. - 6. 30.

과목	지출누계	연간예산	집행율 %
수입			* 는 대외 지출임
I. 현금 수입	2,188,939	4,204,000	52.1 %
1. 일반현금	2,005,384	3,913,000	51.1%
실일조	1,275,684		
감사	189,856		
주일	513,542		
학교	26,302		
2. 절기현금	109,874	230,000	47.8%
신년	46,816		
부활절	63,058		
3. 목적현금	73,681	61,000	120.8%
선교	4,569		
구제	60,588		
복합등기	7,504		
기타	1,020		
II. 운용 수익	86,124	163,000	52.8%
1. 예전	35,262		
2. 주방	9,136		
3. 테일	1,422		
4. 월만찬물가	20,234		
5. 도서관매대	11,089		
6. 기타	8,980		
III. 수입총계	2,275,063	4,367,000	52.1%
지출			
I. 선교목회	405,474 *	850,700 *	47.4%
1. 해외선교	105,803		
2. 국내선교1	148,237		
3. 국내선교2	53,634		
4. 강훈사역	64,410		
5. 전도예배팀	32,897		
6. 영어예배	493		
II. 교육목회	251,363	688,300	36.5%
1. 교육1	27,269		
2. 교육2	90,626		
3. 청년	32,803		
4. 양육1	14,722		

5. 양육2	9,722		
6. 장학	65,725 *		
7. 비전(청소년사역)	10,496 *		
III. 일반목회	1,111,282	2,382,322	46.6%
1. 예배부	14,934		
2. 음악부	66,291		
3. 봉사부	52,629		
4. 문화홍보부	32,862		
5. 목회행정	59,156		* 16,856
6. 경조	6,702		
경조 1	3,639		
경조 2	3,063		
7. 사무국	767,359		* 24,940
8. 정신학원	91,407 *		
9. 재정	260		
10. 교회사편찬	-		
11. 인터넷	7,997		
12. 주님의동산	-		
13. 예비비	11,686	217,240	5.4%
IV. 목회외지출	353,901		
1. 지급이자	12,417 *	19,067 *	
2. 차입금상환	341,484 *	517,167 *	
V. 경상지출총계	2,122,020	4,437,487	47.8%
VI. 경상차액	153,043		
VII. 자본지출	106,990		
1. 지급보증금	69,000	279,000	
2. 비품	8,990	30,000	
3. 차량운반구	29,000		
VIII. 기타 입금	417,275		
1. 전도금(정리)	316,127		
2. 예수금(발생)	25,039		
3. 미수금 (연말정산환급금)	6,110		
4. 예수보증금	70,000		
IX. 기타 지출	379,636		
1. 전도금(발생)	341,463		
2. 예수금(납부)	38,173		
X. 월말자금수지	83,692		
XI. 전기이월	236,557		
XII. 월말자금잔액	320,316		대외지출계 924,586* (43.6%)

2. 자금계산서 (위원회, 팀 별)

목회별	팀명	누계	예산	비교(%)
선교목회				
해외선교	해외선교	67,410	123,840	
	의료	1,413	47,300	
	캄보디아	26,064	47,520	
	몽골	-	1,000	
	중국	8,415	14,400	
	주한외국인	2,500	26,000	
	소계	105,803	260,060	40.7%
국내선교1	농촌교회	43,732	80,000	
	도시교회	20,300	38,000	
	학원	50,946	75,500	
	군부대	24,813	30,000	
	육군훈련소	8,445	29,200	
	소계	148,237	252,700	58.7%
국내선교2	환경	-	4,000	
	호스피스	7,102	17,700	
	법률상담	-	-	
	전화상담	949	4,500	
	복지	17,350	61,200	
	장애인	432	6,140	
	기관선교	27,800	40,400	
	소계	53,634	133,940	40%
강훈사역	구제	46,168	73,240	
	119	3,490	-	
	탈북자	4,000	10,000	
	소년소녀	5,174	23,160	
	결식아동	3,530	18,600	
	단전단수	-	-	
	일용근로자	2,048	8,000	
	노숙자	-	-	
	소계	64,410	133,000	48.4%
전도예배		32,897	50,000	65.8%
영어예배		493	10,000	4.9%
교회번식		-	1,000	
합계		405,474 *	840,700 *	
교육목회				
교육1위원회	통합유아	1,091	3,000	
	통합아동	50	3,700	
	영아	971	3,600	
	유아	2,314	6,100	
	유치	4,644	8,000	
	유년	3,361	14,500	
	초등	7,241	20,000	

교육2위원회	소년	7,590	18,500	
	소계	27,269	77,400	35.2%
	교육지원	31,846	68,000	
	중등부	29,531	36,000	
	고등부	16,320	34,000	
	유소년축구	5,209	8,000	
	AWANA	7,720	20,000	
청년위원회	소계	90,626	166,000	54.6%
	청년	27,278	60,000	
	30대사역	5,524	7,400	
양육1위원회	소계	32,803	67,400	48.7%
	새가족	12,286	10,000	
	가정사역	907	15,000	
	하프타임	1,529	4,000	
양육2위원회	소계	14,722	29,000	50.8%
	양육사역	2,040	18,000	
	목요모임	2,051	5,500	
	중보기도	5,630	5,000	
장학위원회	소계	9,722	28,500	34.1%
	장학위원회	65,725 *	150,000 *	43.8%
비전(청소년사역)		10,496 *	170,000 *	6.2%
합계		251,363	688,300	
일반목회				
예배위원회	예배부	10,844	27,700	
	안내부	884	1,400	
	봉역사역	2,611	2,000	
	새벽기도	-	500	
	세례사역	592	6,000	
음악위원회	소계	14,934	37,600	39.7%
	호산나	12,800	25,000	
	시온	29,555	36,800	
	살롬	12,620	32,600	
봉사위원회	할렐루야	11,312	19,550	
	소계	66,291	113,950	58.2%
	봉사부	23,401	54,300	
	주방부	12,952	38,800	
문화홍보위원회	주자안내	2,243	3,500	
	자원봉사	3,735	1,000	
	월만찬물가	1,000	9,000	
	서점사역	8,525	20,000	
경조위원회	결혼예식	770	2,000	
	소계	52,629	128,600	40.9%
	홍보출판	14,020	21,000	
	함글함글	6,091	15,000	
문화홍보위원회	음향	194	2,000	
	영상	1,434	2,000	
	도서실	11,121	10,000	
	소계	32,862	50,000	65.7%
경조위원회	경조1	3,639	9,000	
	경조2	3,063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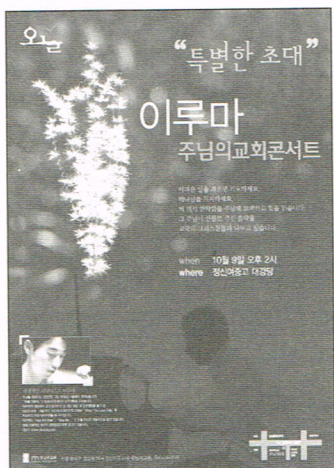
	소계	6,702	18,000	37.2%
목회행정		59,156	91,000	65%
재정위원회	경리부	-	1,000	
	계수부	260	1,000	
	소계	260	2,000	13%
인터넷부		7,997	20,000	40%
교회사편찬		-	15,000	
주님의동산		-	2,000	
합계		240,831	478,150	
사무국			1,676,932	
1. 사무실		767,389	1,430,344	53.7%
사례비	교역자 및 직원사례	355,658		
상여금	교역자상여금	62,025		
퇴직급여	교역자퇴직금	26,196		
잡급	잡급	6,640		
복리후생비	종회연금	-		
	국민연금	2,929		
	건강보험료	8,367		
	고용보험료	736		
	산재보험료	5,227		
	식대	9,519		
	당직비	910		
도서인쇄비	교역자도서비	13,200		
	일반도서비	997		
여비교통비	출장비	-		
	시내교통비	360		
통신비	전화료	7,984		
	우편료	96		
	기타	74		
수도광열비	전기료	25,832		
	가스료	14,517		
세금과공과	상회비등	10,000 *		
	면허세기타	1,295		
수선유지비	비품	5,303		
	건물	43,886		
	전기설	1,797		
	기계설	3,591		
	기타	187		
접대비		987		
회의비	당회	3,852		
	기타	238		
차량유지비	유류대	28,405		
	수선비	5,064		
	보험료	626		
	자동차세	-		
사택관리비	임차료	28,122		
	관리비	16,500		
	수선비	125		
지급임차료	복사기임차료	3,381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9,352		
	기타	7,513		
광고선전비	홍보비	587		
지급수수료	소개비	1,138		
	보안비	303		
운반보관료	이사비	1,248		
방송비	음향비	19,131		
	영상비	455		
행사비	교구수련회	300		
	교구발표회	-		
	무지개축제	30,000		
	기타	150		
예전비	예전수당	6,798		
	불품비	2,548		
잡비		340		
정신지원비		1,500		
2. 정신학원		91,437 *	246,588 *	37.1%
수도광열비		40,110		
수선유지비		47,056		
방송비		4,270		
3. 예비비		11,686		장래비
합계		870,482		
일반목회총계		1,111,282	1,676,932	

2005. 9. 14.

주님의교회 당 회 장 문 동 학 목사
재정위원장 이 병 식 장로
감 사 문 창 복 장로

10월 9일 4부 전도예배, 피아니스트 이루마 공연



이루마는 우리에게 KBS 드라마 '겨울연가' OST에서 최지우의 테마곡 'When The Love Falls'를 작곡하고 직접 연주하여 뉴에이지 아티스트로서는 드물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루마는 국내 연주음악 장르의 성장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에서 순우리말로 지은 그의 아버지의 바램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그가 4부예배 오늘을 통해 전해줄 연주와 간증은 믿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다. 오는 주일 4부예배를 통해 누구보다 교우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루마는 우리에게 KBS 드라마 '겨울연가' OST에서 최지우의 테마곡 'When The Love Falls'를 작곡하고 직접 연주하여 뉴에이지 아티스트로서는 드물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루마는 국내 연주음악 장르의 성장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에서 순우리말로 지은 그의 아버지의 바램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그가 4부예배 오늘을 통해 전해줄 연주와 간증은 믿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다. 오는 주일 4부예배를 통해 누구보다 교우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오늘 오후 4시 중예배실, “부부세미나” 열려

이번 아버지학교에는 우리 교회의 양승래 성도와 두 아들, 그리고 사위가 함께 지원하여 이채로 왔는데 이날 모든 가족,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 사위와 딸 등이 모두 무대에 나와 자신들의 삶을 나누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 다양한 사연의

나눔을 통해 참석한 지원자와 가족들, 그리고 스태프들의 가슴은 뜨겁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번 아버지학교에서는 불신자가 많이 참석하여 9명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드린다는 고백을 하였으며 많은 지원자가 재결신하였다. 아버지학교는 70여명의 스태프들이 지원자 아버지들을 진정한 남성으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파송의 노래를 클라이맥스로 감동과 은혜 가운데 그 막을 내렸다. 다음 아버지학교는 요원교회에서 10월 8일부터 열리게 된다. 특별히 오늘은 문동학 목사를 강사로 한 부부세미나가 오후 4시부터 중예배실에서 열린다. 친밀하고 수준 높은 부부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는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

(1면에 이어서)

“오늘” 팀, 소그룹 워크숍 가져

그래서 주님의교회 “오늘” 전도예배에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Seeker small group은 교회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눔과 교제로 위로를 얻고 점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두 번째 순서는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중에 주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와 각오 등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바라

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또한 앞으로 Seeker small group에 참여할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내적변화를 일으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Seeker small group을 돕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리더들이 먼저 성경공부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10월2일 주일 3시 30분부터 첫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남자 그룹원이 많이 신청되기를 바란다. 이후에는 문동학 목사에게 체계적인 리더 훈련을 받기로 하였다.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 많은 리더를 배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상생활이 바쁜 관계로 밤샘을 해야 하는 워크숍 일정 때문에 몸은 많이 피곤하였지만 Seeker를 위한 열정과 전도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도예배 “오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교회로 돌아오며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